



운송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2022. 5. 2 (월)

02. 6454-4879

02. 6454-4873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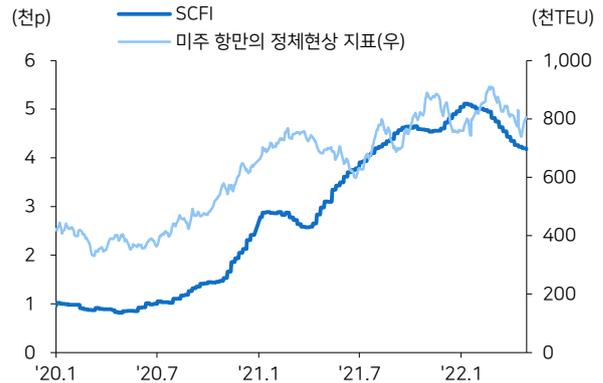
jungha.oh@meritz.co.kr

국내의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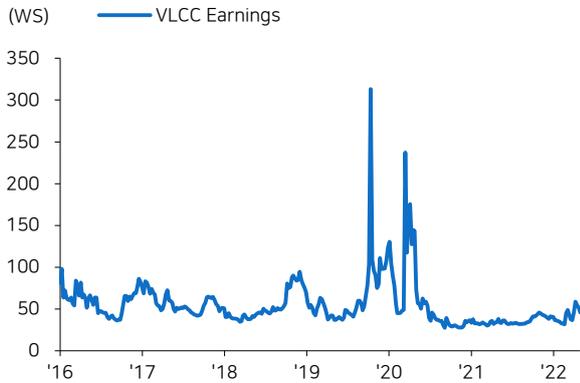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404p(+1.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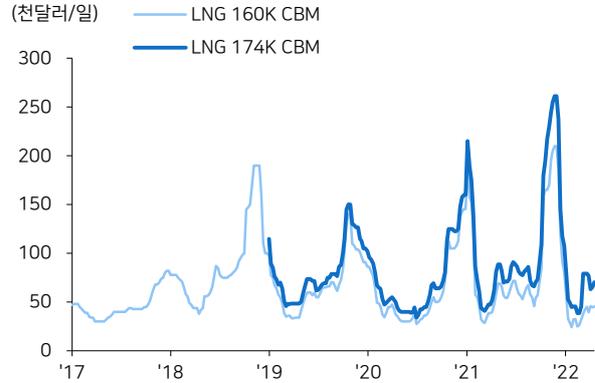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4,177.3(-18.7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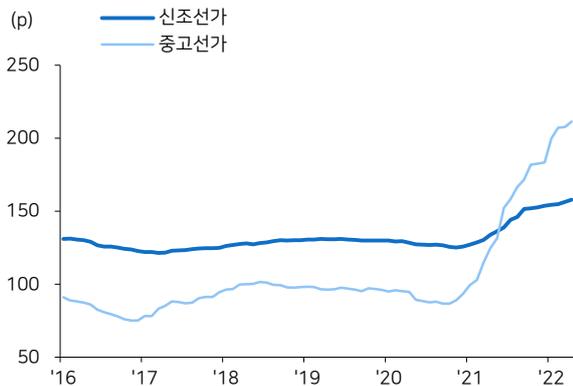
VLCC Spot Rate 45.8p(-6.1p WoW)



LNG Spot 운임 45.8p(+0.3p WoW) 76.8p(+6.3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57.8p(-0.2p WoW) 211.2p(+0.5p WoW)



항공시장 지표 262.4p(-7.7p DoD) 101.9p(-0.2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석탄 부족에 신음하는 인도.. 열차운행도 중단

최근 전력 수요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도가 석탄 긴급 수송을 위해 일부 여객 열차 운영을 중단했다고 보도됨. 지난 28일 전력 수요 피크 당시 1.8만MW가 부족했는데, 전년동기대비 부족 전력량이 24배 증가함. 전력 수요가 치솟으면서 석탄화력발전소의 재고도 부족한 실정으로 인도 연방정부는 각 지방정부에 석탄 수입을 서두르라고 독려 중임. 마하라슈트라주 등 인도 전력 소비의 3분의1을 차지하는 지방 정부는 조만간 1,050만톤을 긴급 수입할 예정임. (서울경제)

Container freight rates tipped to rebound as market bottoms out

컨테이너 운임이 최근 피크아웃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도됨. 아시아~북유럽항로는 4월말 기준 1월말 피크대비 28% 하락한 최근 10개월래 최저수준에서 bottom-out할 것으로 전망됨. 선사들의 결항 등 노력이 추가 운임 하락을 막고 있다고 보도됨. 미국 물류업체 CH Robinson은 중국의 미국항 수출량이 회복하면 항만적체현상이 다시 심화되고, 2022년 인도되는 신조선량이 적어 컨테이너 운임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Tradewinds)

코로나 감소 상하이 느린 정상화...반도체 등 조업재개 기업 늘려

상하이의 COVID-19 신규 감염자 규모가 뚜렷하게 감소하며 점진적 정상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보도됨. 1일 상하이시 당국은 2차 조업 재개 대상 기업을 선별한 '화이트리스트'를 대상 기업에 통보함. 지난 11일 테슬라 등 관내 666개 기업에 '폐쇄루프' 운영을 조건으로 가동 재개를 허용한 바 있음. '폐쇄 루프'는 직원들을 공장 내부에서 숙식시키는 방식임. 마비 상태에 있는 물류 회복을 위해 순평, 중통 등 대형 택배회사들이 대거 포함됐다고 알려짐. (연합뉴스)

Yard bottleneck could derail new FPSO orders

유가 강세에 부유식 원유생산 설비 시장이 인기라고 보도됨. 2022년 12개 이상의 FPSO 발주가 예상되지만, 조선소들이 이미 충분한 수주로 작업여력이 안된다고 알려짐. 중국 Cosco Shipping Heavy Industry와 대우조선해양이 FPSO 5척씩 수주잔고를 보유해 가장 바쁜 조선소로, 삼성중공업과 Dubai Dry docks가 FPSO 수주가 가장 적은 조선소로 꼽힘. 한편, 시추작업도 재개되어 시추 활용률 (rig utilization rate)은 2020년말 65%대에서 현재 70%까지 증가했다고 보도됨. (Upstream)

해운 환경규제로 선박감소 전망...시황에 긍정적

한국신용평가와 무디스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가 실질적으로 선박량 감소로 이어져 해운업계에 긍정적일 것으로 보도됨. 에너지효율지수(EEXI)를 충족하지 못하는 선박이 저속운항과 기관출력 제한 등을 진행해 수급관점에서 개선된다고 설명함.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적선 649척 중 72%가 EEXI를 충족하지 못함. CCI는 34%의 국적선이 충족하지 못함. 저효율 선박은 비용 압박으로 폐선 시점이 단축되고 선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신조 발주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코리아시핑가제트)

항공사의 신 가성비 전략, '프리미엄 이코노미' 뜬다

항공사들이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도입을 확대하는 가운데 '가성비'를 중시하는 고객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됨.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은 기존 이코노미 대비 넓고 비즈니스보다 저렴한 좌석을 의미함. 국내항공사 중에는 에어프레미아가 대형항공사 비즈니스 좌석의 50-60% 가격으로 판매 중임. 제주항공도 2021년 6월 '비즈니스 라이트'라는 이름으로 도입함. (헤럴드경제)